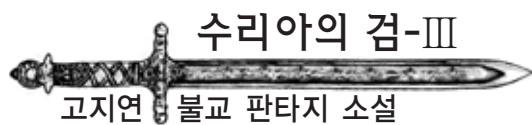


이유가 뭐든 우리한테 이러는 건 아주 웃기는 짓이라고!



사막의 세 머리 용 (2)

“휴. 이제 숨 좀 췌라겠네.”
 난다가 숨을 고르며 구부러진 허리를 폈다.
 “진짜 이 정도 속도로 계속 뛸 수만 있다면 굳이 하늘을 날 수 있는 방법 같은 건 필요 없겠어.”
 “이 정도라고? 아가 네 무거운 책들 때문에 칸타카가 흘랑 다 탈 뻔 했어. 분명히 말해. 칸타카가 정말 하늘을 나는 말인 거 맞아?”
 난다는 대답할 수 없었다. 정말 칸타카가 ‘암리카의 말’이라면 하늘을 날 수 있겠지만, 지금까지 날지 못하는 걸로 봐서는 확실하기 힘들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대답 대신 짐짓 탄성을 피우다 괜히 마을 쪽을 쳐다보며 말했다.
 “근데 여기 좀 이상하지 않아? 한창 저녁때인데 연기 나는 굴뚝이 하나도 없어.”
 무니 역시 짐들이 모인 쪽을 내려다봤다. 짐집마다 똑똑 잠긴 문, 인적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다.
 “사람이 안사는 마을인가.”
 “그건 아니야. 저기 봐. 옥수수가 열 맺춰서 자라고 있잖아. 저건 관리 받는 옥수수라고.”
 난다가 가리킨 쪽에는 진짜 잘 가꾼 옥수수 밭이 보였다.
 “정말이네. 그런데 아직 따 먹을 때는 아닌 거 같다. 그나저나 옥수수 보니까 배고프다. 그렇지, 칸타카?”
 칸타카가 하얀 꼬리를 좌우로 살랑살랑 흔들었다. 무니의 말에 동의한다는 뜻이었다.
 “확실히 요즘은 아무래도 먹는 거에 비해 힘을 너무 쓰는 거 같디니까. 칸타카, 우리 뉘 먹을 것 좀 찾아볼까.”
 마을을 둘러보며 분위기를 파악하느라 신경을 곤두세우기 시작한 난다와 달리 무니의 모습은 천하태평이었다. 결국 무니는 “옥수수는 털 먹어서 안 되겠고...”라고 혼잣말을 하며 어둑어둑한 풍경 속으로 사라졌고, 칸타카 역시 그런 그를 어슬렁어슬렁 뒤따랐다. 하지만 난다는 아무래도 뭔가 미심쩍은 기분을 떨칠 수가 없었다.
 마을의 모습은 평범했다. 무니와 난다가 살던 마을과 그다지 다르지 않았다. 뒷산을 배경으로 비슷비슷한 모양의 가옥들이 모여 있었고, 산에서부터 시작된 물줄기는 이리저리 농작물이 자라고 있는 밭 주변으로 흐르고 있었다. 그리고 판자 혹은 짚으로 올린 지붕 아래에는 조그맣게 각자의 집에서 생산하거나 팔 수 있는 물건을 그려놓은 간판이 걸려 있었다.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조금씩 낯익었지만 분명 잘 손질된 상태였다. 확실히 이상했다. 사람이 살지 않는 마을이라고 하기에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잘 정돈된 모습인데, 어쩌서 인적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 걸까. 난다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봤다. 보라색이었던 하늘이 점점 짙은 남색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삽화 · 김홍인

“그런데 도대체 무니는 어디에 간 거야?”
 난다는 주위를 둘러봤다. 무니는 어떤 집 마당의 큰 나무 밑에 칸타카와 나란히 앉아있었다. 이미 어딘가 먹은 것을 구해온 모양이었다. 난다는 한숨을 내쉬었다.
 “아! 너 거기서 뭐해?”
 “뭐하긴 뭘 해. 여기 무화과나무가 있더라구. 거기 멍하니 있지 말고, 너도 와서 좀 먹어. 그러려면 달아서 먹으면 안 돼.”
 하늘이 어두워질수록 불안감도 짙어지는 걸 느꼈지만, 난다도 허기를 어쩔 수는 없었다. 그는 무니 쪽으로 걸어가며 말했다.
 “주인이라도 오면 어쩌려고?”
 무니는 아랑곳하지 않고 입으로 껌질을 탁 내뱉으며 대답했다.
 “지금은 없잖아. 그렇지, 칸타카?”
 칸타카는 이번에도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었다. 결국 과일을 받아든 난다는 또 다시 주위를 살펴보고 있었다. 여전히 불을 밝힌 집은 한 채도 보이지 않았다. 마을에 감돌던 적막감이 더 짙어질 느낌만 들 뿐이었다. ‘아무래도 이 마을에서 하룻밤을 보내는 것은 위험하지 않을까.’ 난다는 잠깐만 쉬다가, 마을을 떠나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난다의 걱

정을 아는지 모르는지, 무화과를 실컷 먹은 무니가 금세 굶아떨어지는 상황이 발생하고 말았다. 결국 마을을 떠날 수 없게 되어버린 것이다. 난다로서도 이제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 심상치 않은 마을 분위기를 비롯해서 낮의 그 산불은 왜 났던 것이며, 찾으려했던 검 조각을 이제 어디서 찾아야 할지, 당장 내일부터가 걱정이었지만 이럴 때는 ‘일단 잘 수 있을 때 자두자’라고 가볍게 생각하는 수밖에 없었다.
 바람이 술술 불어 들어왔다. 무니는 그 바람을 타고 콧속으로 스며드는 달콤한 향기에 입맛을 다시며 잠에서 깼다. 반만 뜯 눈으로 쿵쿵거리며 냄새가 나는 곳을 찾던 그는 어젯밤 코 밑에 묻은 무화과 냄새인 걸 알고는 혀로 살살 핥으며 잠시 맛을 음미했다. 그러나 눈을 뜨니 나무 창틀 사이로 스며드는 아침 햇살에 눈이 부셨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무니의 잠이 확 깨었다.
 “여기가 어디지?”
 무니는 벌떡 일어나 주위를 둘러봤다. 헛갈려보이는 공간 구석에는 아직도 단잠에 빠져있는 난다의 모습이 보였다. 그러나 칸타카가 보이지 않았다! 무니는 조용히 문 쪽으로 다가가 손잡이를 밀어 보았다. 바깥에서 잠긴 것이지 열리지 않았다. 더욱

힘을 쥐 뭉텅뭉텅 문을 밀어봐도 마찬가지였다. 그 소리에 난다 역시 눈을 떴다.
 “야. 일어나자마자 뭐해. 시끄럽게.” 그래도 무니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다는 듯 문을 열기 위해서만 안간힘을 쓰고 있었다. 얼굴이 빨개질 정도로 필사적이었다. 난다는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으며 주위를 둘러봤다. 완전히 낯선 공간에 난다와 무니, 단 둘 뿐이었다.
 “칸타카가 없어. 내 마법가방과 책들도.”
 난다는 불현듯 생각나서 허겁지겁 허리춤을 샅샅이 수레바퀴도 사라지고 없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지?’ 난다는 어안이 병병했다. 그때, 아무리해도 열리지 않는 문을 등지고 서 있던 무니가 말했다.
 “우리 같은 게 분명해. 그럼, 이거 감옥인 거지?”
 난다는 그의 얼굴이 마을을 떠나야했던 날 이후로 가장 어두워 보인다고 느꼈다.
 “난다. 이거 꿈이겠지? 꿈이라고 말해줘.”
 무니는 난다를 간절한 표정으로 바라봤다. 난다는 그런 친구에게 어떤 말도 할 수 없었다. 무니는 문에다 다시 발길질을 하기 시작했다.
 “난 같히는 게 제일 싫어, 싫다고!”
 “그런데 우리 왜 같은 거지? 누가 우리 가둔 거야?”
 난다의 그 말에 무니의 발길질을 멈췄다. 창 밖에

서 들어오던 눈부신 햇살이 구름에 가려졌는지 순식간에 짙은 그림자가 그들을 둘러쌌다. 두 소년은 감옥인지 헛간인지도 분명치 않은 곳에 멍하니 섰 채 서로의 얼굴을 마주 보고 있었다. 그때 어디선가 콧노래 소리가 들려오더니 점점 그들이 있는 곳과 서서히 가까워졌다. 무니와 난다는 귀를 쫓긋 세웠다. 그러나 흥얼대던 그 콧노래 소리는 바로 끊기고 말았다. 난다는 고개를 가웃했다. 문 앞에 귀를 바짝 대고 있던 무니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 순간이었다. 문이 활짝 열리며 햇빛이 환하게 쏟아졌다.
 “하필 촌장네 무화과를 훔쳐 먹은 재수 없는 녀석들이 너희냐!”
 느릿느릿하지만 장난이 있는 말투였다. 두 사람이 갑작스런 눈부심에 눈살을 찌푸리고 바라본 쪽에는 키가 아주 커 보이는 남자가 한 명 서 있었다.
 그들이 그 남자에게 이끌려 마을 광장에 도착했을 때, 칸타카는 어젯밤 그 나무 밑에 그대로 서 있었다. 달라진 게 있다면 굵은 줄에 묶여서 어떤 소년의 감시를 받고 있다는 점이였다. 까만 피부의 그 소년은 작은 눈과 납작한 코에 딱 다른 입만 어울리지 않게 커서 고집에 꽤 세 보였다.
 “왜 내 말을 묶어둔 거야?”
 무니가 소년을 향해 외쳤다. 잡혀있는 칸타카를 보자 꼭 참고 있던 화가 폭발한 것이다. 무니 자신도 칸타카를 그런 식으로 구속했던 적은 한 번도 없었다. 그는 그들을 둘러싼 마을 사람들을 향해 소리치기 시작했다.
 “칸타카는 그 장난 무화과 하나도 안 먹었거든. 그러니까 풀어줘. 풀어주라고!”
 무니는 발버둥 쳤다. 그러나 그들을 데리고 나온 남자만 힘들게 할 뿐, 칸타카와 마찬가지로 묶여있는 상태에선 별 소용없는 것이었다. 반면 난다는 자신들이 지금 처한 상태를 가능해보느라 빠르게 머리를 굴리고 있는 참이었다. 고작 무화과 몇 개 따 먹었다고 이런 식으로 사람을 다루다니, 이해가 가지 않았다. 게다가 어젯밤 마을에서는 분명 어떠한 인기척도 느낄 수 없었다. 또 무슨 일이 벌어지려고 이러는 것일까. 난다는 한층 더 심하게 발버둥치고 있는 친구를 안타깝게 쳐다봤다. ‘얼음의 성’이라는 곳에 갇혔다 나온 이후로, 저렇게 흥분하는 모습을 본 게 오랜만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만큼 무니 에겐 소중한 칸타카였다.
 “남자. 그 말을 풀어주려무나.”
 낮지만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남카라고 불린 그 검은 피부의 소년이 명령에 따라 칸타카를 풀어주었다. 자유의 몸이 된 칸타카는 바로 두 소년 쪽으로 달려갔다.
 “그래. 말은 풀어주지. 그런데 너희들은 정말 단지 내 집의 물건을 훔쳐 먹어서 이렇게 붙잡혀 있다고 생각하는 게냐?”
 “그게 아니면 뭘데! 이유가 뭐든 지금 우리한테 이러는 건 아주 웃기는 짓이라고!”
 난다는 여전히 흥분해서 소리치고 있는 무니를 진정시켰다. 그리고 침착하게 자신 앞에서 서 있는 사람을 올려다봤다.
 “당신이 그 촌장님인가요?”

사찰(급)안내

- 위 치 : 경북 포항시 (서포항 IC 10거리)
- 사찰 전시관 (2층 240평) 대웅전, 용왕, 산신, 지장전, 대중공양실, 판매장 총 2500평
- 일반 재가 불자님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음
- 특 징 : 눈물 흘리시는 약사여래불, 국내최대 관음목불 (약 250년), 50여점의 크리스탈 개금불 및 회귀불상 전시 (목불 위주 전시) 일사관 외벽 만다라전시, 월간 약 10여개 이상 천도제
- 전시관은 크리스탈 전시회 중으로 약 10년간 걸쳐 조성한 주지스님 개금불로서 절대 모양이 불가능하며 참배하시는 분께서는 황홀감에 빠져드는 진귀한 작품.
- 민간방송에서 17회 방영된 바 있음.
- 임야 10,500평은 대형저수지로서 2011년 2차선 공사 완공되면 어떠한 명목으로 허가 가능함.
- 임야 제외 34억, 사찰만 할 경우 32억
- 상기 면적중 성취관 (240평)의 불상 및 전시관에 조성자금 소요 자금만 받고 있음. (기타 일체 무료)
- 인터넷 상에서 포항 성취관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 연락처 : 010-4504-0174

대덕스님께서 운영하시면 널리 알려진 곳이기 때문에 대성공을 확신합니다.

35 좋은인연 사찰대출안내

31년의 역사와 자산700억원을 자랑하는 형산새마을금고는 전국의 많은 사찰과 인연을 맺고 있는 불교은행입니다.

새로운 불사 사찰매매와 관련하여 지금이 필요하시거나 사찰이라는 이유만으로 아직도 비싼 이자를 물고 계신다면 주저하지마시고 전화주시면 좋은 인연이 될 것입니다.

형산새마을금고의 사찰대출은 이런점이 좋습니다~

- 1 1억원 대출시 월이자가 60만원으로 저렴합니다!
- 2 위약금없이 형편에 따라 조금씩 갚으실 수 있습니다!
- 3 대출기간은 5년이며 만기시 연기가 가능합니다!
- 4 단체명의사찰과 종단 소속사찰도 대출가능합니다!

35 친절상담

상무 이강욱 ☎ 010-9842-4200
 과장 김상민 ☎ 010-7314-2522

형산새마을금고 본점 전경

본점 054)282-9600
 제1지점 054)282-9601
 제2지점 054)282-9602

과일의 왕 두리안

제일 맛이 좋은 시기에 수확하여 들어왔습니다.

두개 6.5KG 이상 55,000 원
 한박스 14KG 이상 100,000 원

Sale!

주문하시면 즉시 택배로 배송되며 받아보실 때는 영하 40도로 급냉해 보관된 두리안이 딱기 좋은 상태로 해동이 되어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주문하셔도 됩니다. 한글로 두리안샵 www.durianshop.com

판매및 문의
 불자가 운영합니다
 대표전화 ☎ 031-882-1357/031-797-1357
 Fax 031-881-1350 긴급전화: 011-474-1345
 입금구좌 : 농협 100023-56-156761(조영숙)

청정 청풍골 참다슬기 농축액

“간”이 피로 하십니까?

예로부터 맑은 물에서 자란 참다슬기는 그 효능이 토종 웅담에 비길 만하다고 하였습니다.

저희 동강청정원에서는 강원도 동강과 남한강 상류 지역에서만 채취한 구슬알 다슬기와 참 다슬기만으로 다슬기 기름과 다슬기 농축액을 제조·판매하고 있습니다.

참 다슬기 농축액

▶다슬기 농축액 : 다슬기 10kg을 껍질까지 분쇄하여 마늘과 생강만을 넣고 가마솥에서 3일간 달여 10ml 60봉지로 포장하여 판매합니다.

▶다슬기 기름 : 다슬기만 15kg을 항아리에 넣고 불기마속에 5일간 끓일 까지 녹여 내린 것으로 900ml병에 담아 판매하고 있습니다. 모든 제품은 냉장상태로 포장하여 택배 배송하고 있으며 후불제로 판매합니다.

문의 : 043)652-2121 동강청정원